

## 평 화 선 언

치열했던 태평양전쟁의 마지막 지상전 이후로, 76 년째의 6 월 23 일을 맞이했습니다.

거칠게 날뛰었던 전쟁의 불길은, 20 만여 명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으며, 소중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던 오키나와전의 기억을 풍화시키지 않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원통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쟁체험자의 증언을 후세에 계속해서 전하며, 평화의 소중함이라는 인류 보편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영구평화의 실현을 강하게 추구하며, 부흥과 발전의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마부니를 시작으로 현토 각지에는 희생되신 분들의 유골과 다수의 불발탄이 묻혀있어, 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 생각이 없습니다.

현민의 바람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유골의 수집, 불발탄의 처리를 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 면적의 약 0.6 퍼센트인 오키나와현에 미군전용시설면적의 약 70.3 퍼센트가 여전히 집중되어 있어, 소음, 환경문제, 미군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SACO 합의로부터 25 년이 지났습니다. 요즈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이 크게 변화해, 미군이 부대의 분산화를 진행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이 내년으로 본토복귀 50 년이라는 커다란 지점을 맞이합니다. 이에 대해 일미 양국의 정부는 오키나와현을 포함한 적극적인 협의의 장을 마련하며, 헤노코신기지건결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에 매몰되는 일 없이, "새로운 주오키나와미군의 정리, 축소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과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오키나와의 과중한 기지부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 오키나와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중인 "기적의 숲 안바루"라고 불리는 희소 동식물이 많이 서식, 생육하는 지역과 개성 넘치는 자연으로 가득한 이도離島 지역 등, 다양성이 재산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짚어질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자연으로 가득한 오키나와, 고유의 문화가 숨쉬는 오키나와, 평화로우며 무척 풍요로워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오키나와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한 편,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지역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 기아, 차별,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과 연대하며, 다양성과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립과 분단이 아닌, 협력하고 걸음을 함께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위기가 찾아온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의 목숨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가 협력해 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국제화가 이루어진 현대에서 평화로운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웃 국가들과의 상호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시간과 장소를 넘어 평화를 생각하는 마음, 안락한 생활을 위하는 마음을 모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지혜를 모아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오키나와 사람들은 긴 역사 속에서 선조를 공경하고,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며,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치무구쿠루를 키우는 것과 함께, 이웃 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한 우호관계를 맺어 고유의 문화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들은, 세계 각국을 잇는 가교로서 활약했던 선조들의 <만국진량> 정신을 계승해, 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길러낸 평화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하는 <오키나와의 마음·치무구쿠루>를 세계로 퍼트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의 바람에 답하여 두 번 다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쟁의 경험과 교훈을 다음 세대로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은 우리들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현민의 바람을 담아 세계 영구평화 창조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오키나와평화상과, 평화로 이어지는 일상적인 사회공헌활동이 빛을 보게 한 추라우치나 민간 평화공헌상 등을 통해, 평화의 바톤은 다양한 활동을 거쳐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며 미래로 이어져 갑니다.

또한, 오키나와와 마찬가지로 비참한 전쟁 경험을 가진 아시아 여러 나라의 청년들과 오키나와의 청년이 함께 배우는 것으로, 국적이나 문화의 차이를 넘어 이어지며, 마음 속에서 키워 온 평화에 대한 바람을 공유하며,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평화로 이어지는 가교>가 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오키나와로부터 세계로 평화의 축이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핵무기의 폐기, 전쟁의 포기, 영구평화의 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くぬ地球ぬ上から有る丈ぬ戦争、無らんなすくとう。  
一人一人が弥勒世(平和)願いる心気(心持ち)繋じ行ちゆるくとう。  
食料分配てい、希望とう信頼育ててい、  
笑顔んかい囲まってい一生とうじみ(遂げる)らりーるくとう。  
うぬ為に必死り努力てい私達から未来ぬ子供達ん  
かい繋じ行ちやびらな。

Let us free this planet from all battles and wars  
By connecting the hearts of all those who wish for peace  
Let us always live together with smiles  
By sharing food, fostering hope and trust among nations  
It is time to show our "Bankoku Shinryo" spiri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to pass the baton of  
"Chimugukuru" to our children, and future generations!

오늘, 위령의 날을 맞아, 희생되신 모든 영령에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오키나와전의 실상과 교훈을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전달하며, 인류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바라고 국제평화의 실현에 공헌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되며 행복을 실감할 수 있는 섬"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을 여기서 결의하고, 선언합니다.

2021 년 6 월 23 일

오кина와현지사 다마키 데니

※사투리 및 영어 번역

지구 위에서 온갖 싸움을 없애는 것.

각자가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이어가는 것.

음식을 나누며, 희망과 신뢰를 키우며, 미소로 가득한 일생을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한 노력을 우리들이 시작해 미래의 아이들에게 이어주자.